

# 프랑스 바칼로레아(Baccalaureat)와 한국어

심승자\*

## 1. 프랑스 Baccalaureat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자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는 우선 일반 바칼로레아와 기술 바칼로레아 및 직업 바칼로레아 세 종류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다. 선택과목 중에는 필수선택과 자유선택이 있으며 필수선택은 6월에, 자유선택은 3월 중순 이후에 시행된다. 한가지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국어, 즉 프랑스어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고 2학년에서 실시된다. 수험생들의 부담을 분담해 주려는 문교부 정책이다.

필수선택과 자유선택의 다른 점은 필수선택일 경우 바칼로레아 종류에 따라 전국이 시험 문제가 같다. 자유선택은 시험관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급한 문제 중 하나를 골라 15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구술시험 형식으로 행해진다. 그러므로 시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

---

\* 프랑스 국립동양어학교

게다가 필수선택은 10점 이하일 경우에는 바칼로레아 종류와 과목에 따르는 계수(coefficient)에 의해 감점이 된다. 그 반면 자유선택은 10점 미만인 경우 감점이 되지 않고 10점 이상인 점수만 그만큼 득점이 되어 총점에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기가 정말 자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선택한다. 이는 시험 총점을 조금이라도 올려 좋은 평균 점수를 얻으려는 것이다.

바칼로레아 총 평균 점수가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그러나 총 평균이 12점 이상이어야 대학이나 학과 선택에 별 지장이 없다. 물론 바칼로레아에 합격만 되면 대학에 갈 수 있으나 아무리 평균화된 공립대학이라 할지라도 각 대학의 명성이 있고 더불어 각자 선택이 있는데다가 해마다 소위 인기를 타는 대학과 학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Grand Ecole(전문대학)을 가려면 2년의 예비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예비반에 들어가려면 경쟁이 극히 심하여 총 평균 16점이 되어야 구애를 받지 않고 좋은 예비반을 선택해 갈 수 있으며 그 이하는 선택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한국 수능시험 못지 않게 바칼로레아 성적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어느 고등학교에서나 다 가르치는 영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어 중 하나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 2 외국어 필수 선택 과목으로 한다. 그리고 또,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는 프랑스 지방어(브르타뉴, 코르시카, 바스크, 카탈로니아 말 등), 전통 아라비아어, 중국어, 덴마크어, 현대 회랍어, 히브리어, 일어, 네덜란드 어, 폴란드 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와 같은 12개 외국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하지 않은 외국 학생들은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선택하고 나면 제 2 외국어 필수선택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모국어를 필수선택 과목으로 허용하였다.

모국어를, 필수선택인 제 2 외국어로 하는 수험생들은 문교부에 특혜

신청을 해야만 한다. 즉 프랑스 문교부에서 프랑스에 온지 2년 이상이 되지 않았다는 증명서와 함께 특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이 신청만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점점 특혜의 경우를 없앨 방침이라 한다.

## 2. 자유 선택 외국어의 전형 형식 변경

1980년대에는 필수선택은 필기 시험이고 자유선택은 고등학교 수업 과목이든 아니든 구별 없이 모두 구술 시험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 구술시험이었던 자유선택이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프랑스 전국 및 일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지방어 및 외국어는 자유선택이나 구술 시험이고 거기서 제외된 외국어들은 전부 필기시험으로 바뀌었다.

자유선택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외국어일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 취급된 문제들을 준비해 오면 시험관이 그 중에서 골라 질문을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외국어는 수험생 각자가 제 마음대로 준비해 온 문제들 중에 골라 답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千差萬別임은 물론이고, 독해력을 비롯하여 맞춤법이나 여러 표기법을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의 균등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을 방지하지 하기 위하여 자유선택의 전형 형식을 구술에서 필기시험으로 바꾼 것이었다. 그 외에도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시험관들을 각지에 배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문교부에 큰 부담이 되고 그렇다 해서 수험생들을 한 곳으로 집합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침을 취한 것이었다.

한국어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80년대에는 필수선택과 자유선택이 다

가능함과 동시에 필수선택은 필기시험이고 자유선택은 구술시험이었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 필기시험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어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어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불리해졌다. 그 이유는, 첫째 수험생들이 정해진 수준 내에서도 이해가 쉬운 문제들을 준비해 올 수 있었고, 둘째 이해와 표현력만이 문제시되었고 맞춤법 및 문법 능력은 평가할 방법이 없었으며, 셋째 아무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여도 동족 선생이 시험관이어서 수험생 개개인에 대해서는 공정을 기하는 단순한 시험관이었지만 전 수험생들에 대하여서는 모든 시험관들이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 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구술 시험에서 필기 시험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폐단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다. 시험관인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었다. 예로 한국어의 경우를 들면, 같은 동족끼리 점수를 잘 주지 않고 것처럼 몰인정해 자기 아이가 드러누워 있다고 하는 협박 비슷한 전화, 시험 전에 찾아보지 않아서 자기 아이만 점수를 잘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오는 원망의 전화 및 자기 아이는 한국말을 별로 잘 못하는데 점수를 잘 주어서 감사하다며 꼭 점심을 대접해야겠다는 등 별별 전화가 다 온다. 바칼로레아의 자유선택 언어 중, 우리 학교에서 취급하는 언어가 31개인데 한국어 외에는 그런 전화가 오는 언어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어머니들의 학교 성적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시험관이 장래 수험생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 수업도 할 수 있으나 나는 이를 절대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아도 능히 이해가 될 줄 믿는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없었던 외국어는 오래 동안 시험 문제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었다는 말이다.

자유선택 제 2 외국어가 필기시험으로 바뀌면서 문교부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되었다. 매년 10월에 발표된 요강에 맞추어 보통 그 다음 해 1월 5일에서 15일 사이에 시험 문제를 두 가지씩 출제

하는데 본문 및 질문을 모두 붙여로 번역하여 문교부에 보낸다. 검사 결과 시험 문제가 평가 기준에 벗어나면 즉,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재출제를 요구하고 질문이 적합하지 않으면 수정하도록 돌려보낸다. 수준 평가에 통과된 시험 문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바칼로레아에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하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문제가 쉽다고 수준을 올린 재출제를 요구하여 다시 출제하여 보냈으나 막상 입시 문제로 나온 것은 수년 전에 이미 입시 문제로 출제되었던 것 일 뿐만 아니라 제일 쉬었던 문제인 경우가 생기기도 해서 놀라움은 더더욱 컸다. 어떤 평가 기준이 세워져 있으나 입시 문제 선택 당시 담당자가 임의로 무책임한 선정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3. 현행 바칼로레아 자유선택 외국어 평가 기준

여기서 말하는 자유선택 외국어는 필기시험을 전형 형식으로 하는 외국어만을 말한다. 매년 조금씩 다르나 현재까지 적용된 문교부 시행 평가 기준을 종합해 보면 독해력과 표현력을 위주로 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 소요 시간 : 2 시간

본문 길이 : A4 용지에 20-30 줄

내용 :

1- 각 국 고등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신문, 잡지, 단편 및 장편, 수필 등의 범위에서 참고 서적이거나 다른 정보에 도움의 없이 출제된 본문의 이해만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대문이어야 한다. 고어나 전문용어 및 어려운 어휘는 원칙적으로 피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註를 달되 그 나라 말로 설명해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 漢字는 피해야 한다. 同音異義 語일 경우에만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할 수 있다.

- 3-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외교상 서로 유대가 좋지 않았던 나라에 대한 반감이 담긴 내용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그 예로 한국어의 경우 일본을 비방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4- 수험생들의 의식 및 감수성을 다칠 위험이 있는 내용은 피해야 한다.
- 5- 지나치게 민속적인 내용은 피해야 한다.
- 6- 대학 수준에서 다루는 식의 질문은 피해야 한다.

질문 : 3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 1- 불어 번역 - 8줄 내지 10줄의 한국어 본문 (6점 내지 8점)
  - 2- 본문 이해 : 질문 2개
  - 3- 표현 및 문장 능력 2개
- 2번 3번은 시험관 임의로 결정하나 총 12점. 2번 3번을 크게 3가지 질문으로 할 수도 있다.

#### 4. 한국어 응시 수험생에 관하여

수험생 수 : 초창기에 자유선택이 구술시험이었을 때는 평균 10명이 넘었으나 필기시험으로 바뀐 뒤에는 10명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수가 증가되었다. 참고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수험생 수에 대한 전체적인 도표를 첨부하였다.

출신 : 한국 입양아 1명, 한국 월남 혼혈아 1명, 유네스코 이북 대표 자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험생들이 프랑스 및 스위스 거주 한국인 자녀들이다.

동기 : 자녀들이 별로 원하지 않으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0점 미만 일 경우에도 감점이 안 되므로, 전체 결과에 손해 될 일이 없다는 관점에서 수험생 자신이 결정하는 것보다 부모, 특히 어머니가 주장해서 선택한다. 이는 집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한국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전달해도, 자기 자식이 한국을 떠난 지 이미 오래 되어 한국말이 서툴다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사람이니까 다른 외국어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또는 출제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편의를 봐 주지 않겠나 하는 망상에 기인된다.

결과 : 우선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프랑스에 온 지 오래 되기 때문에 佛譯은 우수하나 한국어를 잊어버려 다른 질문에서 아주 약한 학생, 둘째는 한국어 실력은 충분하나 불어가 약해 번역에서 점수를 많이 잃는 학생이다. 물론 불어가 약하고 한국어를 잘 아는 학생이 결과적으로 성적이 우수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02년 성적은 아주 우수했는데 20점 만점에 최고점 17.5점으로 총 평균 성적은 14.3점이었다. 몇 년 전부터 한글학교에서 바칼로레아 입시 준비 반이 생긴 뒤부터는 평균 성적이 아주 많이 향상되었다. 그 이전에는 최고 성적이 12-14점 사이였으며 평균은 10.5-12점 사이였다. 최하 점수로 0점도 이따금씩 있다. 구체적으로 답안지를 보면 한국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학생, 철자법이 전혀 없는 학생을 비롯하여, 한글을 전부 로마자로 풀어 쓴 학생, “다음엔 공부를 잘 해서 잘 쓰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붙인 학생들이 간혹 있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교부에 통보하여 그에 대한 응징 처분을 받도록 하게 돼 있지만 이 점만은 묵살하고 넘어간 경우가 있다.

## 5. 한국어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 능력의 개념이다. 그 개념에 의하여 언어 능력의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평가 도구 또한 달라질 것이다.

언어 능력의 요소는 어느 나라 말이든지 다양하여 어떤 평가 기준 원칙 하에 만들어진 개별적인 평가 도구로 언어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 즉, 작문, 독해 및 논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험관이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완벽한 채점을 한다는 것은 현실 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몇 줄의 본문이나 질문으로 충분한 평가가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게다가 프랑스 바칼로레아의 경우는 한국어 위주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수십 개의 언어를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하므로 평가 기준을 세우는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재 프랑스 문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 기준에 따라 맞춤법, 독해력 및 이해력, 표현력 등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어휘력, 문장력과 문법은 어디까지나 피상적이지 실제로 구체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발음, 읽기, 듣기를 비롯하여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평가할 기회나 방법이 전혀 없다.

시험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고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해야 되겠다.

- 1 - 전형 형식을 필기와 구술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
- 2 - 어휘력, 문장력 및 문법의 구체적 측정 (제시된 어휘 활용 및 뜻 설명,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약, 대응 및 생략, 문장의 오류 수정 ……)
- 3 - 읽기, 듣기, 말하기 능력의 측정 (발음, 이해, 구사 능력 ……)



- 4 - 표준어 및 표기력의 측정 (외래어 한글 표기, 한글 로마자 표기, 맞춤법)
- 5 - 프랑스의 경우 책정된 평가 기준은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시험문제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서 고등학교 사이로 담당자에 따라 임의로 바뀌는 것을 없애야 한다.
- 6 - 프랑스 고등학교 한국어 강의 개설 필요 (외교적 교섭 및 한국 정부 재정 지원)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언어 능력 요소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평가 기준도 없음은 물론 그러한 평가 도구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교육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유치원 교육이 언어 교육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 프랑스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기적인 언어 정책이 확립되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언어 교육을 하고 있다.

2. 중·고등학교에서 전 수업 과목을 통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10분 정도의 발표를 하거나 10-15 쪽의 글을 쓰는 훈련을 시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구사 능력과 문장 능력을 비롯한 제반 언어 능력을 키우도록 철저한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우리말에 외국어 단어를 섞어 한국말도 외국어도 아닌 절름발이 말을 하는 습관을 없애며 국어 순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프랑스 유학생들은 "compris 가 잘못되었어요" 또는, "잘못 compris 되었어요" 라는 식의 우리말을 쓰고 있다. ('comprendre 이해하다'의 과거분사)

## 6. 맺음말

완벽하고 이상적인 언어 평가 기준과 평가 도구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없애야 한다. «한 술 밥에 배부르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는 속담처럼 언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초기 교육에서 고등 교육까지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언어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영어 만능 시대라는, 조기 유학이 최상의 교육 방법이라는 생각과 같은 현실을 망각한 태도와 정신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현 세계화 무대에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의 역할과 중요성, 조기 유학이 빚어내는 교육 및 정서적 문제와 암암리에 작용하는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치밀하게 조사하여 온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가를 하기 전에 좋은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다.

<한국어 출제 건본>

## 슬견설 (이와 개의 이야기)

이규보 지음

장덕순 옮김

어떤 손<sup>1)</sup>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엔 아주 비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다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손이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이는 미물<sup>2)</sup>이 아닙니까? 나는 아주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는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

1) 손 : 손님

2) 미물 : 아주 보잘 것 없이 작은 것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 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 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 놈은 좋아할 터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sup>3)</sup>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 질문

I. 위의 밑줄 친 부분을 프랑스 말로 번역하십시오.

다음 질문은 한국말로 대답하십시오.

II. 이 이야기의 제재는 무엇인가?

III. 위의 이야기에 단락을 지어 각 단락을 15자 이내로 요약하십시오

IV. 어떤 손이 실망한 까닭은 무엇인가?

---

3) 대붕 : 상상의 큰 새

## &lt;한국어 외에 다른 외국어들&gt;

한국어처럼 고등학교 교과 과목은 아니지만 바칼로레아 선택 과목인 언어들은 모두 31개이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총 수험생 수는 다음과 같다.

언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알바니아	12	12	12	16	15	19	15	01
암하라(Ethiopia)	04	12	12	06	08	12	08	26
아랍 마그렘	5182	6967	7721	8253	9197	oral	-	-
아랍 베르베르	1448	1143	1277	1083	1750	1558	1612	1671
시리아, 레바논 및 파레스틴	136	120	152	171	160	oral	-	-
이집트	19	52	64	61	65	oral	-	-
아르메니아	124	77	68	59	50	33	-	-
밤바라(Senegal)	45	46	55	47	43	58	-	-
불가리아	19	14	21	23	25	29	21	-
캄보디아	10	18	18	16	11	18	-	-
한국	14	06	09	08	17	14	23	16
크로아티아	144	111	111	78	95	108	92	73
피니쉬(Finland)	16	10	10	09	09	10	08	16
하우짜(Nigeria & Niger)	04	05	∅	03	01	01	02	02
힌디	08	04	04	08	03	05	02	-
헝가리아	41	40	28	32	42	27	20	28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08	05	05	07	03	02	03	-
라오스	19	13	15	19	14	11	09	-
런가라	66	78	폐지					
마케도니아	16	21	15	19	25	10	07	-
말가쉬(Madagascar)	88	28	114	157	162	23	140	133



■ Abstract

## Baccalaurat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in France

Sim, Seung-Ja

For the Baccalaurat (General Certification of Education), students have the possibility to choose Korean language as an optional test. Nevertheless, if the student has been studying in a French high school for less than 2 years, he may take, with derogation, Korean language as one of the 2 compulsory languages.

There are two types of examination, for every optional test:

- 1 - oral examination, for the languages studied in French high schools,
- 2 - written examination, for those not studied in French high schools.

There are two categories of languages that may be chosen as a second language:

- 1 all languages studied in French high schools, but English, German, Spanish and Italian, like French regional languages, Chinese, Japanese, classic Arabic, Greek, Polish, Portuguese, etc.
- 2 all languages not studied in French high schools, which are about thirty, like Korean, Turkish, some African languages, Persian, etc.

Regarding the optional tests, if the grade exceeds 10, it is added to the whole

grade. If, on the contrary, it is below 10, it is not taken into account.

Students must pass a written exam for Korean language which evaluation conditions and criterions are determined by the French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as follow:

Examination time: 2 hours;

Quantity: A4 sheet, 20-30 lines;

Text level: High school level;

Choice of texts: Excerpt of school handbooks, novels, short stories, newspapers and magazines;

Conditions:

- In standard modern language, without neither technical nor specialised vocabulary. In unavoidable cases, the vocabulary must be explained in the native language. In case of Korean, Chinese characters must be avoided except for a homophone, in order to help the candidate;
- Shall be avoided all texts which content refers to certain conflictual historical aspects or to an animosity towards a foreign country. A Korean text should not include any hostile comment on Japan, for example;
- Texts, which might hurt the candidates' conscience or sensibility, should be excluded as well;
- Subjects which are too traditional or academic must be avoided since candidates do not have the cultural and linguistic acquired knowledge (as they were not taught the evaluated language);
- The examination is divided into 3 questions:
  - Translation from Korean to French (8-10 lines, 6-8 points);
  - Text comprehension (2 questions);
  - Personal expression (2 questions)

The last two questions count for 12 points and, if necessary, there might of 3 instead of 2.



Since the present French evaluation is determined for a large number of languages, one cannot require an appraisal system well adapted to the Korean language. Nevertheless, we shall take the following points into account:

- There shall be an oral and a written examination;
- Grammar, vocabulary and writing should be tested;
- Reading, listening and speaking capacities should be tested;
- Knowledge of the standard language as well as transcription of Korean words in Latin alphabet, or foreign words in Korean should be tested;
- There is a necessity to establish the teaching of Korean language in French high schools.

As long as there are no ideal criterion or means of language appraisal, one shall not have an absolute fate in it. Prior to discuss this subject, we should establish a long-term language teaching policy from kinder garden schools to high schools. We should be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language ever since the youngest age, and we should teach it as correctly as possible. This will be the most ideal appraisal that we shall find.